

도박이 생겼어요 🍀

Q) 저는 십 년간 교회를 다닌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몇 달 전부터 친구들과 함께 물건을 훔쳤습니다.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친거죠. 재미삼아 한번 해보았는데 지금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강하게 들었으나 이젠 습관화되어 죄책감마저 들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 가끔 술도 마시는데 헤어 나오지 못하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동대문에서 김 00 드림

A) 남에게 도움되는 삶을 준비하세요.

유혹은 항상 크고 무서운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금 김 자매는 술과 도박의 유혹에서 무참하게 무너지고 변해버린 자신에게 끊임없이 절망하면서도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군요.

이제 자매가 어떻게 하면 물건을 훔치는 잘못된 습관과 술을 찾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봅시다. 처음에는 물건이 꼭 필요해서 훔쳤을 수도 있지만 자꾸 반복되는 도박은 필요보다는 습관에 의해서 즉 그 행위가 주는 쾌락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매가 느끼는 쾌락의 대상을 바꾸어야 하겠지요. 십 년간이나 신앙생활을 한 자매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은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눠서 함께 지는 것이죠. 참된 기쁨은 결코 훔쳐오는 물건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자매가 기쁨을 얻기 원한다면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이 대가는 꼭 물건 값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매가 꼭 소유하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마땅히 그 물건 값을 벌기 위해 용돈을 절약하거나 다른 노동을 해야겠지요.

무엇을 소유함으로 해서 쾌락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면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자매의 기쁨은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만일 물질이 풍부하지 않다면 시간을 내어 남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고아원을 찾아가 자매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가 돌아보거나, 시간을 나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혹은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 분들에게 자매가 도울 수 있는 힘을 나눠보거나, 힘들게 짐수레를 끌고 가는 분의 수고를 몇 분 동안이라도 함께해보십시오. 그 분을 도와줌으로 해서 얻게 되는 기쁨은 자매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남을 돕는 일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도박과 술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고독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도박이나 술은 혼자만의 버릇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버릇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런 친구들을 멀리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친구들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느낄 수 있는 갈등이나 오해는 자매가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서서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독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만약 자매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돌아와 거울 앞에 선다면 일그러진 자신의 초상을 보며 더 깊은 고독과 절망을 맛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독과 절망에 비하면 자매가 친구들과 헤어져 홀로 자신의 길을 가면서 맛보는 고독은 오히려 성장하는 기쁨과 달콤한 안식을 줄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키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자매도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목표지점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바라보십시오. 그 목표만을 향해 발길을 돌릴 때, 잠시 누렸던 최악의 기쁨은 쉽게 사라질 것입니다.

자매가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자 애쓴다면 도박의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맛도 모른 채 마시는 술의 걸멋에서 벗어나서 속사람을 하나님과 자매만이 아는 기쁨의 일로 채우십시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고독하십시오. 자신의 고통이 절망에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새로운 시작이 없는 절망은 자매를 더욱 절망하게 할 것입니다.

글/김형모 [십대들의 쪽지] 발행인.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